

'익산 多e로움' 진화 거듭

올해 5300억원 발행 예상... 복지·문화 등 민생 복합 정책 확대

많이 쓸수록 더 이로운 익산 多e로움(다이로움)이 경제와 복지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민생 복합 정책으로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익산시는 올 한 해 연말까지 발행할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의 규모가 5,300여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 1월 지역화폐(익산사랑상품권)로 시작한 다이로움은 내년 초 출범 4주년을 맞는다. 사용 범위가 지역 안으로 제한되는 지역화폐는 자금 유출을 방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는 이러한 지역화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시는 다이로움을 활용한 타개책 마련에 집중했다.

다이로움은 최근 정부 지침에 따라 추가 혜택이 20%에서 10%로 줄었다. 최대 충전 금액은 월 70만 원까지다. 사용이 복잡하지 않고 삼성페이나 QR 코드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편리한 결제도 가능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미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은 다이로움을 다양한 정책 분야로 확장해 시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친절한接客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반음식점 57개소를 2023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산 관광 · 지역경제 활성화'

군산시, 2023년 모범음식점 57개소 지정

군산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친절한接客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반음식점 57개소를 2023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 선정은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 9월 영업자 신청 및 한국요식업협회 군산시지부의 추천을 받아 1차 서류 심사, 2차 외식업주부와 함께 조사를 꾸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점검요를 따라 현장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지정 심의·의결을 거쳐 군산의 모범음식점으로 최종 지정했다.

올해 신규 지정업소는 2개소로 완도회집(비응동동), 지수만풍천만물장이

(나운동)이며, 음식의 맛, 위생, 시설,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된 56개소와 함께 군산을 대표하는 모범음식점으로 운영된다.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전달,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용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위생용품 등이 지원되며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를 통해 대표음식 소개 등을 비롯한 업소의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계획이다.

진숙자 위생행정과장은 "군산을 대표하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위생관리가 우수하고 좋은 식단 실천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판곤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2024년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군산시, 12월 1일까지

군산시가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오는 12월 1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시는 지난 10월 시간여행축제와 함께하는 시 고향사랑 홍보전에서 제안된 시민의견을 수렴해 인기답례품인 농·수산물목의 다양화는 물론 신규 품목인 축산물 및 제조상품, 특히 관광·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

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군산에 사업장이 있으며 사업 영위 기간이 1년 이상인 업체는 신청 가능하며, 공모자격이 사업 영위 기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춰진 만큼 신생 업체들의 신청이 기대된다.

희망 업체는 오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청 5층 기획예산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공고문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고향사랑기부제 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김판곤 기자

12월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는 시와 계약을 맺고 계약체결일부터 내년도 12월 말까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군산민의 특색 있는 우수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기부자가 공감·선호하는 답례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대

익산시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

익산시는 내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인원 425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선발 인원 255명보다 170명(67%) 늘어난 수치다. 관련 예산도 전년 35억 6800만 원에서 올해 51억 3300만 원으로 15억 6500만 원(44%) 증액됐다.

익산시는 지역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소득 보전을 위해 매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일반형 일자리 77명(전일제 56명·시간제 21명) △복지형 일자리 240명 △특화

형 일자리 50명 등 총 425명을 선발한다.

일반형 일자리 신청 자격은 익산시에 주소로 둔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다.

필요 서류를 갖춘 뒤 오는 29일까지 익산시 경로장애인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친 뒤 최종 선발자가 결정되며, 근무 기간은 1년이다.

복지형·특화형 일자리의 경우 시가 일자리 수행기관을 선정해 위탁한다. 이번 모집에는 익산시 장애인 복지관 등 8개소가 신청했으며,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일자리 일부를 위탁받아 이를 3년간 운영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일반형 일자리 선정자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 배치돼 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형·특화형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사회복지사실이나 장애인단체 등에서 경중 장애인인 중증 장애인을 돕는 '1:1케어'나 이용자 돌봄 보조 서비스, 환경미화 등의 역할이 주어진다.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자는 월 206만 원을, 주 5일 20시간 근무하는 월 103만 원을 각각 급여로 받는다.

안마사나 요양 보호사 보조 등 특화형 일자리 근무자에게는 주 5일 25시간 근무 기준 월 129만 원이 지급된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연말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정원형 축제로 변화 모색

익산시가 가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천만송이 국화축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원형 축제로의 변화를 추진한다.

시는 하전 부시장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천만송이 국화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정원형 축제로의 변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단계별 추진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정원형 축제로의 변화는 최근 들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여주국제가든페스티벌 등 정원형 축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도 정원형 축제로 변화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정원형 축제로의 변화를 위한 축제장소 입지조사 △지역경제 소득창출을 위한 콘텐츠 발굴 △국화축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주)지역연구소 플랜플러스원은 용역추진 계획 및 주요 논점 수행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보호 시민 참여교육

익산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시민참여 교육·홍보활동, 공공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시는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2일 부송도서관 시청각실에서 2023년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익산경찰서, 익산교육지원청,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 아동학대 예방 퍼포먼스, 시민참여 포스터 공모전 시상, 아동권리 결의를 담은 레이저 드로잉 쇼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양육환경 속에서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각적 시민 참여교육을 마련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사랑장학재단, 2023 학부모 설명회 개최

익산시는 자녀 진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지난 21일 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지역 학생과 학부모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 익산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트렌드'를 주제로 진행됐다. 다가오는 대입제도의 주요 변동 사항과 전형별 입시 대비전략 수립방법,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른 고교학점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설명회는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익산시 진로진학 컨설팅수행업체인 (주)중앙에듀 흥정의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특히 설명회 참석 학부모 중 10명을 추첨하여 자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시 학생의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사업을 고교년까지 확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